

2003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빈의 교육론 입장에서
교회교육의 발전방향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전공

홍성술

칼빈의 교육론 입장에서
교회교육의 발전방향 연구

지 도 이 은 규 교수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년 12월 0 일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科 牧會學 碩士(M-div)專攻

洪 性 述

홍성술의 석사학위 논문을
합격으로 판정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3년 12월

감사의 글

주님의 명령에 의해 신학을 공부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해 주신 이은규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그리고 부심을 맡아 주신 정연락 교수님, 이은선 교수님, 한성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과 신학을 위해 많은 기도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정원교회 임예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옆에서 눈물로 격려와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신 이순례 어머니님, 그리고 사랑의 아내 지미희집사, 먼 곳에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이명원 목사님, 주)서흥 건축사사무소 임직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힘 있게 응원해 준 은기, 은미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2003년 12월

홍 성 술

차 례

I. 서 론	
A. 문제 제기	3
B. 연구의 목적과 방향	5
II. 교회 본질과 교회교육의 역사적 배경	
A. 교회의 개념과 본질	6
1. 교회의 개념	6
2. 교회의 본질	8
B. 교회 교육의 역사적 배경	10
1. 초대교회의 신앙교육	10
2. 중세교회의 신앙교육	12
3. 종교 개혁시대의 신앙교육	14
III. 칼빈의 교육사상과 교육론의 이해	
A. 칼빈의 교육사상과 교리교육	16
1. 칼빈의 교육사상	17
a.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	21
b. 설교와 교육	22
2. 칼빈의 교리교육	23
B. 칼빈의 교회 교육론의 이해	26
1. 가정과 교회교육	29
2. 학교와 교회교육	30
3. 성인과 교회교육	33

IV. 한국교회의 성장에 따른 교회 교육의 문제점	
A. 한국교회의 성장에 따른 문제점	37
1. 목회관의 요소	39
2. 개 교회주의의 요소	40
3. 도덕성 상실의 문제점	42
B. 한국교회의 교회 교육의 문제점	44
1. 교회교육 관점에서의 문제점	44
2. 교회학교의 교회교육 문제점	46
3. 장의 변화에 대한 소홀한 교회교육	49
V.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교회교육의 발전 방향 제시	
A. 칼빈의 교회교육에 의한 교육방향 예시	51
1. 하나님 중심의 교육	55
2. 교리중심의 교육과 이원화 극복	56
3. 교회중심의 교육	58
B. 바람직한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방법론 제시	62
1. 한국교회의 교회교육 방법론의 다양화	63
2. 공동체 중심의 교회교육 방법론 제시	64
3. 교회학교의 성장을 위한 교사상 제시	67
VI. 결 론	69
참고 문헌	73

I. 서론

A. 문제 제기

오늘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목표로 목회의 꿈을 펼치며 열정을 다하는 교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장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의 탄을 쌓아 왔습니다. 대도시에서 십자가의 철탑이나 조형물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이고 밤에 보이는 십자가의 내온 사인은 가로등 불빛보다 더 많은 것처럼 도시의 전체를 비추어 주기도 합니다. 도시를 벗어난 시골 지역도 마을마다 새마을 회관이 있듯이, 지역 주변마다 교회의 건물이 빠지지 않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대적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역사의 120여 년 전 국내에 목숨을 걸고 상륙하여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상륙하여 온 선교사들에 의한 복음에 대한 절규와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순교 정신, 그리고 뜨거운 영혼 사랑과 전도의 열정으로 미개했던 사회와 국민을 변화시키고, 가난에서 부유한 가정의 축복을 갈망하며 기도하였던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합창들이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으로 인하여 대형교회들이 탄생되고 양적으로는 남한 국민의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를 오늘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기독교계가 부러워하는 양적 성장의 모습이 어느 때부터인가 침체를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점점 무디어져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다원화된 사상의 혼재 속에서 세상은 숨

을 쉬지 못할 만큼 바쁘게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환경들이 여러 모든 분야에서 어그러지고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과 함께 살아 숨쉬어야 할 귀중한 생물과 자연들이 파괴되고, 그토록 좋은 환경이 무참하게 벗겨지고 찢겨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화의 문화적 파장으로 인간의 욕구가 상승되고 다변화 되어가고 있으며, 교회에 있어서도 양적 팽창과 세속화 되어지는 신앙 윤리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등록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거룩한 성도 천국 시민의 모습이기 보다는 때로는 아이들까지 보는 TV 매체에 범죄자의 모습으로 떠오르는 사회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이웃 간에든지 사회 안에서든지 일그러진 성도의 자화상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써의 성도의 신뢰가 어느새 무너지고 의혹의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인지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벗어나기 위해 교회 안에서는 많은 교회교육 세미나와 심포지움들이 많이 열리므로 그나마 교회의 갱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있음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성장의 기쁨에서 깨어나 개혁적인 성숙한 교회의 확립을 위한 반성과 함께 식어 가고 메말라 가는 교회의 문제점을 성찰하며 교회 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고 대안을 찾고 방법론을 연구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해결책을 이제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가르치고 훈계하였던 우리 민족의 교육실천에 대한 애절한 정신처럼 오늘날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거울 삼아가며 예수께서 친히 그 발로 걸으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세상의 풀밭에 있는 염소들을 양으로 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양육하는 교회교육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 연구의 목적과 방향

본 명제 연구의 목적은 오늘의 변화무쌍한 다원화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주의를 지향하여 교회 교육의 참된 정신을 깨달아 교회 성장은 물론 개인의 지적 영적 성장과 함께 거룩한 성화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천국시민의 모습으로 성장되도록 하기 위해 교회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개방화와 세계화 속에 잃어가고 퇴색되고 변질되어 가는 진정한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 교육의 본질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칼빈의 평생에 헌신한 개혁적 신학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그의 개혁적 신학이론가와 실천가로서 또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뿐 아니라 기독교 교육목회의 실천가로서 그의 방대한 신학적 문헌을 통해 기독교 교육의 유용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층 성숙된 교회를 세우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회 교육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연구 제시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직시하고 목회와 교육의 유기적 관계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며 현실의 교회성장 속에서, 교육의 난맥상의 혼란 속에서 교회 교육이 사회와 신앙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를 살필 것이며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혼을 위하여 씨름하는 바른 목회자의 교육상을 나름대로 표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주의의 신학 입장에서 성경적 신학의 뿌리에서 공교회의 신조에 가장 충실한 신학의 바탕에서 칼빈의 신학적 교육적 개혁적 견해를 살펴보면 매우 유익하리라 사려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교육을 통한 성도의 성숙함과 알곡 같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엡4:13) 논자는 교회 위에 고귀한 헌금들을 쏟으면서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많은 교육관들의 건물을 보면서 과연 교회교육이 얼마나 내실 있고 열정적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지, 효과를 발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평생 종교개혁의 뿌리를 깊게 일군 칼빈의 종교 개혁의 신학적 모티브를 통하여 교회가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먹고 사는 자로서, 불길같이 일어나 부흥했던 교회 역사를 바라보며, 변화와 개혁의 현 시대에, 바람직한 교회교육의 발전 방향을 연구 제시 하고자 합니다.

II. 교회의 본질과 교회교육의 역사적 배경

A. 교회의 개념과 본질

1. 교회의 개념

교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찾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회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교회를 가르키는 두 가지 용어가 있다. 하나는 카알(qahal)이며 이 말은 페어된 qal에서 왔으며 부르다, 소집하다(to call)를 의미한다. 명사로써는 회중, 집회, 여호와(하나님)의 총회를 말하며 언약 공동체를 지칭 한다.¹⁾

둘째는 에다(edhah)이다. 이 말은 지정하다(to appoint) 혹은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만나다, 또는 함께 오다(to meet or come together at appointed place)를 의미하는 야드(ya adh)에서 유래하였다. edhah는 정확히 말하자면 지정된 모임을 뜻한다. 즉 이는 약속이나 일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모여진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단어는 사람들, 의인들, 악인들, 동물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르치기도 하는 다양한 용례를 가진 단어이다. 그러므로 에다의 의미는 카알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신약에도 역시 70인역에서 유래된 두 말이 있는데 첫째는 에클레시아(ekklesia)이다. 이는 ek와 kaleo의 합성어이며 불리내다를 뜻한다. 둘째는 수나고개(sunagoge)이다. 이 말은 sun과 ago로 되어 있으며, 오다, 혹은 함께 오다를 의미한다. 후자는 전적으로 유대인의 종교적 집합이다. 혹은 공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물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마 4:23, 행 13:43, 계2:19, 3:9). 이와 같이 카알은 이스라엘의 모임(공동체)을, 수나고

1) 김길성, 조직신학 교회론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6), 6쪽.

개는 모이는 장소를 더 강하게 의미 한다.²⁾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이어받음으로써 자기들만이 참 하나님의 집회요 참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참 종말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인 것에 동의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모임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못하지만 전자와 거의 동등한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였다. 벌코프(Berkhof)는 교회를 세례 받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 혹은 그 자녀들과 함께 참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의 단체로 정의 하였다.³⁾ 따라서 하나님이 모으신 에클레시아(ecclesia)는 택함을 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community)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교회(ecclesia)란 부활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이다.⁴⁾

2.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교회사적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교회의 본질적 성질에 관하여 견해에 차이가 있다. 구교는 외부적이고 유형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찾지만 개신교는 이러한 외적인 관념을 깨고 성도들의 무형적이고 영적인 교통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는다.

교회는 피택자들의 집단이다.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외면적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2) 이병철 편저, 성서원어대전: 『신학사전』, (서울:브니엘 출판사, 1985), p.20.

3) L. Berkhof, 『교회론』, 신윤복역, (서울:성광문화사, 1992), p.37.

4) E. G. 제이, 『교회론의 역사』, 주재용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18.

오직 성도의 교통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교회를 단순히 성도들의 집단,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성화되고 그를 머리로 하여 그에게 연합된 자들의 집단으로 보았다.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무형의 보편적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이미 하나로 모였으며 현재 모이고 있는 또한 장차 하나로 모이게 될 모든 피택자들로 되어 있다. 또한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배우자이며 신체이며 충만 이다”.⁶⁾ 라고 밝혀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유기적 연합을 바탕으로 하는 성도의 교통이다. 성도란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주님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포도나무와 가지(요15:5), 몸과 지체(고전6:15-19), 머리와 몸(엡1:22, 23; 4:15-16; 5:29-30)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비유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유기적이면서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이미 초대교회는 교회를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표현한 바 있고 종교개혁에서도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외형적인 조직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환언하면 그들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 그리스도를 믿어 성화되고 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의 단체로 보았던 것이다.⁷⁾ 칼빈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인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확신한다면 성도들이 형

5)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박형룡박사 저작전집VI, (서울: 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p.35.

6)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ap.X

7)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p562, p564.

제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상호간에 그들의 유익(은사들)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⁸⁾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교회의 일치와 순결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제도에 대항하여 기존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참 교회를 재정립하고자 한”⁹⁾ 것은 교회의 본질로서 성도의 교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칼빈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전해지고 들려지는 곳, 또 성례전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대로 집행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두 개의 표지를 말했다. 강겔(K. Gangel)은 지역교회를 정의하면서 “지역교회란 예배, 교제, 교육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신자들이 함께 모여 성경적인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하나의 몸으로서 주권적 정체성을 가질 뿐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과 사역의 일부분으로서 성례, 권징, 서로간의 덕을 세우는 일이 행해지는 곳이다.”¹⁰⁾ 라고 하여 권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본다. 비록 권징이 교회의 핵심적인 표징은 아니더라도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며 성례를 거룩하게 보수하는데 매우 본질적이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주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8) Inst. IV. 1.3.

9) 김길성, 『개혁신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6), p34.

10) Kenneth O. Gangel, *Competent to Lead*, 황성철 역, 『성공적인 경영자로서의 목회자』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6), p.39.

B. 교회교육의 역사적 배경

1. 초대교회의 신앙교육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Synagogue)이나 개인의 가정에서 “말씀을 위한 모임”이라고 부르는 정기적인 집회를 가졌다. 여기에서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였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신조의 형태로 된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다.¹¹⁾

그러나 초대교회가 점점 조직화 되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많아지자 비 유대인계 초신자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절실하게 요청 되었고, 이에 최초로 형식적인 교육이 초신자를 위한 세례준비학교(Catechumenal School)를 통하여 나타났다.¹²⁾ 물론 이 학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인 1세기와 2세기에 설립되어 개종자들을 위하여 신앙교육을 실시하였지만 3세기에 들어서면서 정기적인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 학교의 교육 목표는 교리와 신앙생활의 훈련 이었다. 이들의 신앙 교육은 당시의 개종자들로 하여금 불신사회와 부도덕한 생활에서 성별하도록 교육하는 일은 이 학교의 중요한 사명이었다. 교육의 방법은 교리문답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답식이었다.

수학기간은 2년 내지 3년 이었으며 이 학교의 교사는 초기에는 감독과 사제와 집사들이었지만 후기에는 전담 강사나 교리문답 전문 교사들이 활동하였고, 심지어 탁월한 평신도들도 이에 참여 할 수 있었다.¹³⁾

11) Edward Hakes, 『기독교 교육학 개론』 정경숙, (서울:성광문화사, 1981), p.29.

12) 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신청기,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0), p.122-123.

13) Ibid, p.124.

그러나 이 학교는 AD325-450년 기간에 크게 부흥하다가 450이후에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쇠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기독교가 국교화 되면서 유아세례가 의무화 되고, 교회의 신앙교육이 대부분은 가정의 부모에게 일임되었기 때문이었다.¹⁴⁾

2C 말엽과 3C 초반에는 초신 자를 위한 세례준비 학교에서 발전된 새로운 양상의 학교가 등장하였는데, 그 학교가 바로 문답학교(Catechetical)이다.¹⁵⁾ 이 학교는 복음을 수호하고 이교도들의 가르침과 영향을 깊이 받은 도시에서 젊은 학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주로 지적 교육을 실시하여 성직자를 배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이 학교를 통해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나중에는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감독학교(Episcopal School)와 성당학교(Cathedral School)의 전신이 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과 헬라의 철학사상을 조화 시켜보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하겠지만¹⁶⁾ 이방인 신자들에게 교리문답을 통하여 철저하게 신앙교육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4) 유아세례 실시의 의무화는 교회의 신앙교육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왜냐면 유아세례 교인은 날로 증가하였지만 교회는 이들의 교육을 위한 특별한 교육기관을 창설하지 못하였고, 교육적 책임을 부모들에게 일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방인 개종자들이 점점 줄어들어 이들을 위한 세례준비학교는 수와 질에 있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장년 개종자들을 위한 신앙 교육은 퇴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초신자 교육의 부재현상과 유사한 것으로 앞으로 교육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15) 김득용, 『기독교 교육원론』, (서울:총신대학 출판부, 1980), p.24.

16) C. B. Eavey, Op. Cit, p.139-141.

2. 중세교회의 신앙교육

초대교회가 복음적 신앙과 이러한 신앙 교육의 열정이 뜨거웠던 시대라면 중세시대는 교회의 신앙교육이 암흑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D313년 콘스탄틴(Constantine)대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교회는 역사적으로 점점 세속화 되어 AD590년 그레고리(Gregory) I 세가 로마교회의 감독이 되면서 교황제도가 시작 되었다.¹⁷⁾

교황의 명령에 의하여 교회 외에 거의 모든 학교는 폐쇄 되었고 주로 교육은 사제나 감독들에게서 실시되는 양상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읽고 쓸 줄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다. 교육이 일반 대중에게서 사라졌을 때, 무식과 사악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의 부도덕과 교육 부재로 인한 교회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교회에는 이방인들에 의하여 유해한 풍습, 즉 우상숭배 사상들이 침투하였고, 이 때문에 교회에는 신앙 교육의 소홀함에 의한 진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성자숭배, 성물숭배, 유물숭배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¹⁸⁾

중세시대에는 교회나 성당, 수도원에 의해 학교가 설립되었고 교회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주로 성당학교(Cathedrall School)와 수도원 학교(The Monastic School)등이다.

특히 수도원 학교들은 6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유럽의 교육을 지배하게 되었다.¹⁹⁾

이시대의 교육의 특징은 교육의 대상이 주로 왕이나 황제, 교회의 성직자들과 같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평신도들은 교육

17) 김득용, Op. Cit., p.26.

18) C. B. Eavey, Op. Cit., pp.143-145.

19) Ibid, pp.146-148.

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 무지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교회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공적인 예배나 성찬의 참여를 통하여, 웅장한 교회 건물의 건축양식 속에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성화와 형상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신앙 교육²⁰⁾을 갖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중세기 말엽에는 복음주의적인 소집단²¹⁾들의 교육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었다. 이들은 소수 집단이었으나 은둔 생활을 하며 당시 권력층의 압박을 받고 무시당하여 그들의 교리나 교육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희귀하지만 집단생활을 하면서 정신훈련과 외면의 성결을 강조하고 절제 금욕하는 훈련으로 후에 종교개혁에 있어서 역사적 단초가 됨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3.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교육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 복음에 합당치 않은 교육으로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켰고 신자들로 하여금 로마교회의 교리만을 복종하도록 강요하였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들이 믿는 신앙적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교회를 중심한 신앙교육이 성경적인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신비적 의식에 사로잡힌 미신적인 신앙행위로 나타났던 것이다.

20)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적으로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만찬 역시 그 자체로는 스스로 내용을 가지지 못하며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적교훈의 견지에서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신앙교육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21) 이들 집단 중에서 종교적 생활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집단은 “공동 생활의 형제단”(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이었다. Ibid, p.165.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필연적 사건이요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²²⁾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신앙 교육적 유산은 성경 회복에 있었다. 성경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가 되었다.

특히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의 원리에 의하여 기독교의 신앙의 표준을 성경에 둬으로써 개혁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성경신학자였을 뿐 아니라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누구나 읽혀지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트부르크(Wartburg)의 성에 감금 되어 있던 기간(1521-1522)에 최초로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였던 것이다.

루터의 성경 번역의 의미는 기독교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앙 교육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종교개혁자들의 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종교 개혁자 칼빈(J. Calvin)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와 기독교 구원 진리의 유일한 표준으로 믿었다. 그는 자신이 성경을 주석 했을 뿐 아니라 그가 제네바 교회를 시무 했을 때에 행한 예배 설교가 성경의 본문을 강해하는 설교(Lectio Continua)²³⁾였다는 사실은 오직 구원의 진리가 성경에만 있으며 교회가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적

22) 정일웅,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Op. Cit., p.255.

23)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는 곧 신앙교육의 방편이었다. 그 예로 주일의 3번 집회에 첫 집회는 바울서신, 두 번째는 복음서, 마지막집회는 요리문답을 설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월, 화요일에는 요리문답, 수요일은 마태복음 목, 금요일은 서신서, 토요일 밤에는 요한복음을 각각 가르쳤다.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유형기, 서울: 한국기독교 문화원, 1986, p.410.

사역에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유산은 신앙 교육서(Katechismus)와 이것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에 정열을 쏟는 일이었다.²⁴⁾ 루터는 1529년에 두 권의 신앙 교육서(대, 소)를 만들었는데 그는 그의 제자 멜랑히톤(Philip Melanchthon)과 함께 지방교회를 돌아보면서 목회자와 설교자, 여러 평신도를 만나면서 그들이 만난 신도들이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먼저 목회자와 설교자,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목적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된 것으로 그가 뷔텐베르크(Wittenberg) 교회에서 대리 설교자로 봉사 할 때에 설교했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 바로 그의 신앙 교육서이다.²⁵⁾ 이러한 신앙 교육서는 제네바 종교 개혁자 칼빈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제네바 교회의 목회사역에 임하면서 수행하였던 임무는 개혁교회의 설립과 교리의 확립을 위하여 교회법을 작성하는 일 신조를 비롯한 예배모범서, 그리고 교회의 신앙 교육서²⁶⁾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의 신앙 교육서는 여러 면에서 루터보다 더욱 새로운 모습과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만 10세의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 신앙 교육서를 배우게 하였고, 성인들을 위하여서는 주일 오후 예배의 설교를 통하여 가르치기도 하였다.²⁷⁾ 이상에서 살

24) Ibid, p.257.

25) 정일웅, 『교육목회학』 Op. Cit., p.316.

26) 원래 칼빈은 제1차 사역기간인 1537년에 첫 번째 신앙교육서를 만들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여 제2차 사역기간인 1542년에 두 번째 신앙교육서를 만들게 되었다. 이들의 책을 만들기에 앞서 1536년에 그는 신학대전인 '기독교강요'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의 첫 번째 신앙교육서는 바로 이 책의 요약된 해설사라고 할 수 있다. Ibid, p.331.

27)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37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교육 목회적 차원에서 직접 신앙교육서를 집필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고민하는 열정을 가졌으며, 신자들의 신앙 성숙을 도모하고 견고히 자라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본 받아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Ⅲ. 칼빈의 교육사상과 교육론의 이해

A. 칼빈의 교육사상과 교리교육

1. 칼빈의 교육사상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프랑스 리옹(Lyon)에서 태어나,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평생을 헌신한 종교 개혁자이며 신학자이다. 그는 소위 제2세대에 속하는 종교 개혁자였다.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Wittenberg) 성문에 붙였던 때인 1517년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본다면, 칼빈이 개신교로 개종하고(1534),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던 때가 1536년이었으니, 그는 루터보다는 거의 20년 늦게 종교개혁에 가담한 셈이다.

따라서 칼빈은 이러한 특성을 살려, 루터와 츠빙글리(Zwingli), 부처(M. Bucer) 등의 제1세대 종교 개혁가들의 사상을 총결산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종교개혁신학을 완성할 수 있었다. 특히 그의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대표적 저서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방향과 원리들을 제시해 주는 저술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

시 55과로 나누웠다. 원래 1년의 52주에 비하여 3과를 더 만든 것은 축제일에 한 과목씩 더 배우기 위해서였다.

다.²⁸⁾ 또한 그의 제네바에서의 목회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제네바 교회와 시민에 대한 목회는 곧 그들에 대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의 설교와 성례전의 집전은 당시의 무지와 무교육의 풍토를 개선하려 하였으며 신앙고백서(Confession de Foi)를 제정하여 올바른 기독교 신앙내용을 세우며 매 주일 시민들에게 읽혀지고 예배에서 고백되어졌다.

요리문답서(Catechism)를 집필하여 모든 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교리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말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이곳에서 유럽전역에서 찾아온 많은 신학생들을 교육하였으며 그의 후학들이 그의 종교 개혁정신을 이어받아 개혁에 앞장서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독일의 교리사가인 칼 홀(Karl Holl)은 칼빈을 가르켜 “세계적인 수준의 민족 교육가”(Volkererzieher von weltgeschichtlichem Rang)라고 칭하였다.²⁹⁾

칼빈의 교육 활동은 그의 신학과의 관련성 안에서 함께 보아질 때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칼빈의 사고가 전반적으로 신학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칼빈의 신학은 칼빈주의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신학사상은 수많은 초기 종교 개혁자들의 노력을 기초한 것이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 교부들에게서 배워 온 것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서 배운 것들이다. 그는 어거스틴이 서술한 체계에 비하면 더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제시하면서도 그의 탁월한 종합과 분석으로 인해 기독교의 본질을 밝혀내는데 엄청난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

28)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장로교회 출판사, 1999), p.85-86.

29) Karl Holl,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III, *Der Westen, Johannes Calvin*(Tübingen, 1928), p.273.

그는 무엇보다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신학을 개혁하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학의 종합적인 체계를 수립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사상은 여러 주석들과 설교, 논문들 속에 산재해 있어서 뚜렷하게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기 어렵다. 루터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칼빈은 좀 더 체계적인 규모로 계획을 세우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일관된 신학의 체계를 펼침으로써 로마 카톨릭을 갱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개신교의 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³⁰⁾

칼빈은 신학자요, 교회 정치가요, 프랑스 개신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 유럽의 인재를 배출한 교육가였고, 교수이자 성경 주석가요, 성 베드로 예배당의 설교자였다. 칼빈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조차도 “칼빈이 성취한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우리는 그가 네다섯 개의 두뇌를 모두 동시에 사용하였다고 말해야 할 정도다”고 인정하였다. 칼빈의 신학은 그 바탕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정신이 스며 있으나, 그의 겸손은 항상 생동하는 확신의 원천이 되었다.

칼빈의 신학의 내용적인 초점은 하나님 중심적이다.(God-centered). 특히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신성의 특성과 본성들을 강조한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성경이 증거 하는 바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고 존중한다. 이에 비해서 인간은 원죄의 영향으로 부패한 피조물이다. 여기서

30)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2권』, (서울:도서출판이래서원, 2001), p.146-147.

칼빈의 신학에 담겨진 남다른 태도와 자세가 우리나라에 온다.

칼빈은 어거스틴이나 루터보다 훨씬 더 은총의 신학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의 성경적 인간관에서 기인한다.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주셔서 보편적으로 죄를 억제하시고 세상의 문화, 과학, 의학 등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신다. 그러나 이런 은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주어진다.

칼빈의 신학의 윤리적 귀결은 바로 경건이다.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주권(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을 매우 강조해서 가르쳤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최초 원인 제공자이며 근원 자이심을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분으로 가르치거나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계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에 간섭하신다는 것이요, 거시적으로 만물의 흐름과 때를 결정하시고 미리 작정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며 만물은 어떻게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Soli Deo Gloria).

칼빈은 예지와 예정을 구분하되, 둘 다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의 지식임을 인정한다. 다른 죄인들은 선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지옥에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선택을 받은 자들이나 버림을 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칼빈의 신학은 혼자서 신학을 개발하거나 발명해 낸 천재가 아니다. 그는 종교 개혁자들의 글과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던 복잡한 주변 환경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주력하였다. 따라서 칼빈의 신학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 것이며 손과 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신학인 것이다.³¹⁾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사역과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 보살핌과 인도함 전체를, 곧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교육’”(Paedagogia Dei)이라고 비유하였다.³²⁾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를 그는 자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교육의 과정으로 묘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교육하는 자로, 인간을 교육받는 자로 칭하였다. 그는 심지어 “만일 하나님이 최고의 유일한 교사가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도 교회의 머리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³³⁾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학교’(schola Dei),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discipuli Dei)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하나님은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의 학교로 부르시고 모두를 그의 학생으로 삼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할 때도 그는 ‘하나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하였다.

a.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

칼빈에 의하면 이것은 무엇보다 구약성경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는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옛 계약을 ‘아동기의 교회’(puerilis ecclesiae)로 표현하였다.³⁴⁾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은 때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뜻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었던 취약한 상태 속에서 살았다. 따라

31)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2권』, (서울:도서출판이레서원, 2001), p.159-162.

32) CR, 37, 27(사40:28) ; CR, 49, 348(고전3:3) ; CR, 31,155(시16:7) ; CR, 31, 386(시28:1) ; CR,31, 483(시49:4).

33) CR, 43, 343,(미4:2) : “Deus non est caput ecclesiae, nisi sit summus et unicus doctor.”

34) CR, 23, 53, (창3:1) : “puerilis ecclesiae aetas” ; OS, III, 424, II, 11, 2 ; CR, 24, 404(출25:53).

서 그들은 아동기에 비유된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백성의 유아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그에 자신을 ‘맞추어서’ 교육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Familienvater)으로서의 역할, 즉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다.

구약의 옛 계약이 하나님의 ‘아동기의 교육’에 비유된다면, 신약의 새 계약은 칼빈에 의해 성숙한 ‘청년기의 교육’에 비유되었다. 칼빈은 아버지가 자녀들이 커 감에 따라서 연령의 특성에 맞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연령에 맞게 유대인에 대해서는 미성숙한 어린이 교육으로 교육의 기초를 다지고, 기독교인은 성숙한 성인답게 직접적인 가르침(disciplina)으로 교육하신다는 것이다.³⁵⁾

하나님은 그들의 눈과 귀, 그리고 그들의 감각에 직접적으로 와 닿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도록 하셨다.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제사의식과 짐승을 드리는 모든 예식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자신을 헌물로 드림으로써 구약적 제사의식을 완성하셨다. 딸서 구약의 제사의식의 궁극적인 목적(scopus)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제사의식을 통로로 예 계약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미리 이끄신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구약의 초자연적 사건들이나 제사의식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워하시기 위한 구원 교육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³⁶⁾

35) OS, III, 435, II, 11, 13 ; CR, 50, 224ff(갈4:1).

36) OS, III, 436, II, 11, 14, ; CR, 29, 178,(신33:18이하).

b. 설교와 교육

칼빈에게서는 설교와 교육이 그다지 본질적이고 결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설교와 교육을 서로 함께 보는 것에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저술에는 전반적으로 그 둘은 근본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 개혁자인 루터의 교육은 설교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설교가 말씀의 선포이고 이 선포의 뒤에는 인간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한다면, 교육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인간적인 책임(menschliche Verantwortung) 세상적인 일(weltliches Ding)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교회는 말씀의 선포, 즉 설교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반해 교육은 그의 교회이해에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인간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로 보았다.

교회는 어머니처럼 신자를 잉태하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교회의 교육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선포, 즉 설교와 성례전이 포함되고, 더 나아가 치리와 여러 다른 보조적인 방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칼빈에게 교회에게 교회의 교육은 루터에게처럼 설교와는 구별되는 교회 안에 설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되었다. 칼빈은 물론 교회의 교육은 인간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교육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곳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기 때문이다.³⁷⁾

37)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1999), p.126-129.

2. 칼빈의 교리교육

종교 개혁자들 중에 칼빈만큼 교리란 말을 자주 그리고 중요한 의미로 사용한 사람은 드물다. 칼빈에 의하면 교리란 설교의 의미와 동등하게 사용되었고 또한 그러한 이해에 따라서 교회 교육은 하늘의 교리를 설교하는 일이며 그 직무가 목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란 어떤 것인가? 란 물음에서 칼빈은 교리에서 시작되고 교리에 기초해야하는 것이 교회라고 대답했다.³⁸⁾

칼빈은 교리란 교회의 정신으로 이해하였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교리는 그 몸을 다스리며, 생명을 지니게 하며, 항상 살아 활동하게 하는 교회의 정신 그것이다.

칼빈은 교리에 의한 교회교육의 유익성을 디모데 후서 3장 15-17의 내용에서 찾고 있는데 첫째는 인식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들었는데 이것은 15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에서 유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삶의 올바른 형성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 17절 말씀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에서 유추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종과 올바른 삶에 대한 자극인데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16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칼빈은 교회교육의 중심에다 교리교육을 세웠다.

칼빈은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잘 기초된 교리의 결실을 중히 여긴다. 가르쳐 이해한 교리의 강조는 인식과 지식이 하나의 전체가 되며 동시에

38) CR, 48 : 57 행2:42.

신앙의 본질적인 표시가 된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에게 인식되지 않는 신앙이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리가 없다면 인식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교리와 신앙의 이러한 이해에 따라서 교회교육의 중요한 임무가 나타나게 된다. 즉 교회는 그들의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교리에 대한 지식을 주어야 하고 이러한 교리의 인식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와 교육은 교회의 행위에 중심을 이루는 것이 되며 교육 그것은 목회 사역의 지배적인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교리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교회교육의 근본일 뿐 아니라 교리적 이해의 분명한 지식과 인식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과 지침의 제시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의 교리의 지식적이며 인식적이어야 함에 대한(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강조는 결코 기독교 신앙의 지식주의화와 합리주의화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칼빈은 궁극적으로 교리를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성의 닫힌 눈을 열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칼빈은 교리와 삶의 일치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교리교육은 히브리서 5 : 11에 근거하여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신앙의 초보단계요, 둘째는 신앙의 진보단계이다. 역시 칼빈은 히 6 :1에 근거하여서도 신앙의 초보단계와 진보 단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집의 건축에다 비교하여 설명한 것인데 무지한 자들에게 신앙의 시작의 근거를 제시하고(집의 건축에 주초를 세우는 일)과 그것을 기초로 하여 계속 진보를 가져와야

할 단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초보의 단계에서 진보의 단계로 나아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보의 단계는 진보의 단계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물론 칼빈은 진보단계로 나아가는 교육의 목표는 훈계와 각성을 통한 인간의 의지 확립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보는 인간의 전 생애 동안 계속되어야 할 일이며, 결코 어느 과정에서 완전하게 이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칼빈은 에베소서 4장과 히브리서 5장과의 관계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생애 동안에 어린아이의 모습과 청소년기의 모습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요구한다. 칼빈이 교리교육을 위해 만들었던 제네바의 신앙교육서는 구성과 내용과 그 학습 방법에 있어서 초신자나 기존신자에게 이러한 단계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신앙의 물음과 대답의 관계를 통하여 자립적인 신앙논쟁의 판단 능력을 형성하도록 도우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칼빈은 이러한 교리교육은 교회교육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교육은 교회의 학습인 교육과 입교자교육 그리고 가정 중심의 교육과의 관계에서 교육적 목회의 실체가 전개 되었다고 할 것이다.³⁹⁾

B. 칼빈의 교회 교육론의 이해

1536년 칼빈이 목회자로 부임한 후 제네바 시는 본격적으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드리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 하였다.

“칼빈이 오기 전에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제네바 교회는 실상 존재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공식적인 신조나 신앙적인 신조나 신앙적인 훈련체계

39) 정일웅, 『기독교 교육연구(주제 교육목회)』, “교육목회의 신학적 근거”, 서울: 총신대학 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제1권1집 창간호(1990), p.10-16.

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교회는 재산권 관리나 교인 훈련이나 교인 심사 또는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해고할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못했다”⁴⁰⁾ 고 포스터(Herbert D. Foster)는 당시 제네바 교회의 내적 상태를 지적했다.

칼빈은 그의 고별 연설에서 자신이 제네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는 거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설교가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상을 미워했으며 그것을 불태울 기세가 가득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했습니다.” 당시 제네바 시 당국은 교회를 조직체로 인정하지도 인정할 수도 없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합법적이거나 명확하게 구축된 어떤 지위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⁴¹⁾ 이러한 상태를 파악한 칼빈은 새로운 교회 조직을 위하여 “규례”(Articles)와 “교리문답서”(Instruction) 그리고 “신앙고백서”(Confession)와 같은 교회 조직에 필요한 기초 문서들을 만드는 것 이었으며 칼빈은 이 문서들을 통해 제네바 교회의 건설의 길을 개척한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 제1장에서 교회의 필요성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존립하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하나님은 ‘목자’와 ‘교사’를 교회 안에 세위 이들의 입을 통해서 교인들을 가르치도록 하셨다고 하였다. 연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40) Herbert D. Foster, “Geneva before Calvin(1387-1536)”,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8(1903), p.238-9.

41) Herbert D. Foster, “Calvin’s Puritan State in Geneva”, *Harvard Theological Review*, 1(1908), p.402.

“우리는 아직 우리의 육체라는 틀 속의 노예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능력에 맞는 놀라운 방법과 형태를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신다. 비록 우리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⁴²⁾

여기서 말하는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물론 교회이다. 이 구절은 먼저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칼빈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준다. 이는 칼빈이 ‘교회’를 ‘아콤포다치오 데이’의 ‘하나님 교육’의 한 통로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낸다.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야 말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페다고기아 데이’의 중요한 통로요, 기관이요, 장이라고 보았다.⁴³⁾

칼빈은 어머니로서의 교회 즉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곳으로서의 교회 개념을 제일 먼저 언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의 교회론의 핵심적인 부분에는 “교육하는 곳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교회의 핵심적인 표시는 ‘말씀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이라고 보았는데, 그의 교육의 개념이 이 두 가지 기능과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의 특수한 기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씀선포나 성례전의 집행은 그의 사고구조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인간을 더욱 성숙시키고자 하여 자신을 인간의 이해능력에 맞게 교육시키시는 ‘아콤포다치오 데이’ 즉 하나님의 교육의 방편이다. 그리고 교

42) Institutio, IV, 1, 1.

43)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1999), p.121-122.

회는 그에게 신자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하여 그들이 부족함을 벗어나 신앙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곳, 즉 하나님 교육이 실현되는 곳이다. 따라서 말씀선포나 성례전의 집행도 궁극적으로는 신자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도록 돕는 교회의 교육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되는 교회교육에 대한 입장이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의 교육을 ‘페다고기아 데이’의 일환으로 이해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행위와 활동들을 ‘교육’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폭넓고 포괄적인 교회개념을 제시해주고 있다.⁴⁴⁾

다시 말하면 그는 교회의 모든 행위들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교회의 모든 행위들을 교육에로의 수렴시키는 ‘교육목회’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 가정과 교회교육

칼빈의 청소년 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칼빈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일은 당연히 부모의 의무이다. 특히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유아세례에서의 약속과 관련하여 청소년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더욱 지워진 것으로 생각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믿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는 신학적으로 은혜의 언약과의 관계에서는 자녀에 대한 구원은 일차 교육적으로 책임을 지게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여기에 칼빈의 교육 목회의 출발은 유아세례자들의 청소년 나이에 이를

44)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p.124-126.

45) 정일웅, 『기독교 교육연구』, “교육목회의 신학적 근거”, 총신대학 부설 기독교 교육연구소, 제1권 1집 창간호(1990), p.17-18.

때 그들에게 집중적인 신앙의 초보자 교육으로서 교리 교육이 실시되었다. 칼빈은 부모의 가정교육의 임무는 먼저 교리 안에서 가르치고 다음으로 도덕적 훈련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지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부모를 첫 번째 혹은 제1의 교육자로 간주했다. 칼빈이 부모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이 세례식에 나올 때 부모가 필히 함께 해야만 한다는 서약 속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⁴⁶⁾

자녀들을 훈련 시켜야 할 책임은 기독교인 부모들의 의무이자 특권이였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양육과 훈계로 그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 할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칼빈에게는 유아 세례자에 대한 대부(Paten)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정된다. 세례 받은 아이와 청소년들의 교리교육 책임은 가정에서는 부모이지만 대부제도는 부모를 잃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대신 돌보아 주어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주어진다(OS II, 31f). 이는 후견인으로서 이상적으로는 자녀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CR 53, 279 : 딤편 3:3-5).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즉 자녀의 교육, 보호, 양육의 책임은 곧 교회의 목회사역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2. 학교와 교회교육

칼빈은 제네바에서 인문학교와 대학(Akademie)을 세웠다. 이러한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중에 우선적으로 취급된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인 교리교육과 성경공부였다. 교리교육(Katechismus)은 학교에서 보

46)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p.91-92.

충되었는데 6-7학년에는 라틴어와 불어로 된 Katechismus는 라틴어 훈련에 학습교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교리문답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반복되었으며 입교 준비반의 교리교육은 교회에서 기본적인 학습이 진행될 뿐 아니라 토요일 오후 3시에 학교수업에서 반드시 전 주일에 배운 것을 복습시켰던 것이다. 교리교육에는 반드시 성경도 함께 다루어졌는데 이러한 학교에서의 교리교육에는 기도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한다. 그 외에도 예배와 함께 찬송 부르기(시편을 중심한 노래) 그리고 성찬도 자주 학교에서 개최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교회와 학교, 주일예배와 학교에서의 신앙교육 이 모두는 서로서로 연결되게 한 것인데 예배에서 듣고 받아들인 것은 학교교육에서 더 깊게 다져지고 보충되었으며 해명되고 적용되게 한 것이다. 반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은 역시 교회 생활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실천 되어야 했다. 예배는 여기서 신앙적 삶을 종합하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회와 학교의 관계를 이처럼 밀접한 관련 속에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학교를 교회처럼 성직화 하지는 않았다. 여러 사람들은 언어와 학문과 성경과 예술 그리고 교리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제네바에서의 학교 교육이 가장 잘 조화를 이루시대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교 역시 교리 안에서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고, 교회와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교회의 임무에 관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 학교의 가르침은 가정과 교회가 밀접한 연관 속에 교회 교육으로 집약되는 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회와의관계도 이러한 모습을 이루었다는 것을 뜻한다.⁴⁷⁾

47) 정일웅, 『기독교 교육연구』, “교육목회의 신학적 근거”, 총신대학 부설 기독교 교육 연구소, 제1권1집 창간호(1990), p.19-21.

특히 칼빈은 교회 교육의 중심과제는 교리(Doctrina)를 가르치는데 있었다. 이는 제네바 신앙교육서(Genfer Katechismus: 1537/1542)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교회의 교리교육 즉 Katechismus교육의 중요성을 그가 교제했던 영국의 한 성주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하나님의 교회는 Katechismus(교리교육)없이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은 선한 씨앗이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는 것처럼 왕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붕괴되지 아니하고 버티는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아주 인상 깊게 이 신앙교육서(Katechismus)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끌어지도록 염려하고 돌보시오!(Eduard Seymour에게 보낸 편지 1548. 10. 22). 칼빈의 이러한 교리교육은 청소년과 나이에 관계없이 성인의 초신자들을 위해 교리 안에서의 신앙지식의 무지를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교육은 하나의 신앙교육서를 통해서 초신자들에게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에게도 매주일 오후 집회 때에는 교리를 따라서 설교하도록 했던 것이다. 제네바 신앙교육서 자체가 문답의 형태로 만들어 졌지만 그러나 그 전체 내용은 매주일 오후 설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52과(총 55과)로 편성되어 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는 주일 정오 12시에 교회에 모여 교리교육을 받게 하였고 3개월마다 한번씩 test를 거쳐 합격자에게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주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지금도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교회교육이 기본 틀로 수용되어 적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칼빈의 교리 교육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신앙의 근본 지식, 기본지식, 그 본보기적인 것을 교리로 표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곧 신앙적 삶의 원리요 지침이요 삶의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칼빈이 추진하는 학교의 목적은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학교는 좁은 의미에서 교회적 목적에 봉사해야 했다. 교회와 학교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와 학교의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두 사회적 조직은 서로를 각각 존재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상적으로는 서로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 자신의 재량권 안에서 독립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⁴⁸⁾

결론적으로 교회와 학교는 칼빈에게 있어서 두 개의 중심을 이루는 개혁 작업의 축이었다. 교회는 시간적, 역사적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에 우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았다.⁴⁹⁾

3. 성인과 교회교육

칼빈은 신앙고백서의 기능을 청소년들에게만 국한 시키지 않고 성인들도 배워야 할 책으로 사용하였다. 성인들의 교리 교육은 3개월 코스로 반복되었으며 그 때마다 시험을 치고 합격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입교인으로 환영하며 성찬에 참여케 하였다.

또한 1536년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아카데미 강당에서 제네바 교회 사역에 임하면서 파렐과 함께 이끌었던 성경 연구 모임이었었으며 1941년 교회법에 명문화하여 실천에 옮겼다. 이는 제네바 교회 목사들과 평신도들로 모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경 연구는 목사들의 계속 교육에(재교육) 큰 자극과 기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경 연구의 목적은 성인 평신

48) Robert White, "The School in Calvin's Thought and Practi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12(1969), p.23-24.

49)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p.91.

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깊은 지식과 이해 속에서 살도록 삶을 도우는 데 있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성인들로 하여금 기독교 교리의 깊은 인식의 차원으로 인도하려 한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폭넓고 깊은 신앙의 통찰력을 얻고 그 다음 단계로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성경연구의 단계로 이끌기를 원하였으며 이는 성경 해석을 하는데 기본적인 안목을 제시하려 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칼빈의 설교는 교리교육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하며 믿음이란 설교된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는 인간의 소리에 달려있다.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할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설교란 하나님이 그의 지식을 전달하도록 결정하신 도구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시는데 1)외형적인 설교를 통해서이며 2)성령의 숨겨진 계시를 통하여서라고 했다.

그러므로 신앙(믿음)이란 설교(Praedicatio)와 교리(doctrina)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교리 교육과 설교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다스려지도록 그리스도의 높고 거룩한 지시라고 칼빈은 말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설교는 역시 교회의 정신이다(anima ecclesiae).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하늘의 교리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Coelests cloctrina). 이 때문에 칼빈은 입으로 묘사되는 설교를 제네바 교회 목회사역의 중심에다 세웠으면 모든 교회회원들로 하여금 주일의 정규적인 예배뿐 아니라 가능한 자주 설교 예배에 참여하도록 가르친 것이다.⁵⁰⁾

50) 정일웅, 『기독교 교육연구』, “교육목회의 신학적 근거”, 총신대학 부설 기독교 교육연구소, 제1권 1집, 창간호(1990), p.22-24.

이상과 같이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교육 사역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개혁 교회의 전통의 하나의 본보기이며 그는 우리에게 복음을 교육하는 교육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임을 발견하였으며 교육적 이해와 교육적 실천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육의 현실에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숙한 신앙이란 먼저 교리와 설교를 이해하는 것을 뜻하며, 두 번째는 성경에 기초하여 모든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으로 이해되며, 세 번째는 높은 수준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윤리성과 판단 능력을 활용 할 줄 아는 단계로 본다. 에베소서 4장과 히브리서 5장과의 관계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생애 동안에 어린아이의 모습과 청소년기의 모습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요한다.

칼빈이 교리 교육을 위해 만들었던 제네바의 신앙교육서는 구성과 내용과 그 학습 방법에 있어서 초신자나 기존신자에게 이러한 단계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신앙의 물음과 대답의 관계를 통하여 자립적인 신앙논쟁의 판단능력을 형성하도록 도우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칼빈의 이러한 교리교육은 교회교육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교육은 교회의 학습인 교육과 입교자교육 그리고 가정 중심의 교육과의 관계에서 교육적 목회의 실체가 전개 되었다고 할 것이다.

IV. 한국교회의 성장에 따른 교회교육의 문제점

한국 교회의 성장은 세계의 교회에서도 부러워하고 인정할 만큼 괄목만한 급성장을 이룬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으로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무서운 저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다. 교회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 환경적인 요인, 문화 인류적인 요인, 선교전략적인 요인, 영적, 신학적 요인 등으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교회의 성장의 큰 변화가 있었던 1985-1995 년의 성장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교회의 출현이다. 대교회의 각종시설과 경제적으로 부요한 현대인에게 매력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은 이 시기에 한국의 괄목한 경제적 성장과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의 출현 등으로 볼 수 있다. 대 교회에 대한 많은 비난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교회로 성장 시킨 목회자들은 보편적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더 많은 노력과 경주를 한 사람들임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물론 교회 성장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겠지만 한국 목회자들의 헌신적 사역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이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실상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서 어떤 종교나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현대인들은 자기 생활 실제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고등종교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그럴 경우 아무래도 현대감각에 맞는 기독교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속감과 사회적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찾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기독교인들 중 국회의원 중 다수도 기독교인이고 예술인 중 다수도 기독교인인 것을 보면 교회는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이유로 나오는 자를 우리는 선교적 차원에서 유리한 점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높은 선교열정을 들 수 있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받은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각이 크게 일게 되고 이에 따라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 되었다.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의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⁵¹⁾

아울러 한국교회의 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도시화이다. 한국도 농촌 대 도시의 비율이 4:6이상으로 도시로 대이동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농어촌 교회는 날로 약화 되어가는 반면 도시 교회는 날로 성장을 거듭한다. 맥가브란 교수는 “기독교는 다윗의 도시에서 탄생하였고, 시저의 도시에서 성숙했다”.⁵²⁾고 말했으며 기독교는 도시를 정복하는 종교이다.

바울은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알렉산드리아, 로마 등 대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을 사용하였다. 도시화 현상으로 교회는 자연 증가 하였지만 더 중요한 점은 도시인들이 농어촌보다 복음에 더 수용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은 도시에 비해 보수적이어서 새 사상이나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지만 도시는 새 사상과 종교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도시의 특징이다. 따라서 도시는 교회성장을 위한 많은 자원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⁵³⁾

한국 교회 기독교인 수는 매 10년마다 거의 2배로 증가되었다. 이 같은 급격한 교회 성장은 아울러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51) 신형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민영사, 1997), p.177-180.

52)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p.278.

53)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 성장론』,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3), p.287-290.

A. 한국교회의 성장에 따른 문제점

1984년 한국교회 선교 백주년을 전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계 언론 매체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은 화살로서 아픔이 되지만 오늘의 한국교회 성장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며 치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될 것을 바라면서 비판에 대한 반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물량주의에 대한 자기반성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 할 때마다 교역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교회의 물량주의를 개탄하거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적 성장과 외형적인 발전에 따른 가치기준이 목표가 정당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부흥만 된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논리는 비 성경적일 뿐 아니라 반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경계해야 할 사상인 것입니다. 60년대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지도자들은 경제 개발과 산업화에 앞장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슨 수단이든지 좋다는 논리가 먹혀들고 현세적이고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도 이 땅에서 축복 받아 잘 먹고 잘살자는 기복신앙이 국민적 공감대와 맞아 떨어져 교회의 숫자적 부흥의 기원을 낳았습니다.

둘째는 교회성장에 걸 맞는 성숙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에 있어서 불균형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앞으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는 늘어났으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얼마나 알아 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

용하며 이루어 가는지,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내적 성숙 입장에서는 아직 미숙한자리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셋째는 사회악에 대한 교회의 책임의 반성입니다.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구조적 사회악에 대해 교회의 책임을 버렸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사이에서 사회 참여의 방법에 대한 의견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쟁은 개혁주의 사상에서 이미 성경이 제시하는 바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한국교회의 윤리적 타락, 탈 현세적, 기복 주의적 신앙 형태에 대한 반성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모두 나름의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중 집회를 통한 부흥운동, 어떤 교회는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훈련이라든지, 영성개발을 통한 영성운동 등 다양합니다. 이는 대부분 성도들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신앙을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⁵⁴⁾ 이와 같이 교회 성장에 따른 몇 가지 반성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교회성장의 평가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신앙고백 하듯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며 질적 양적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몇 가지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1. 목회관의 요소

한국교회 성장에 있어 가장 혼선을 빚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교회성장 개념의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성장’이란 개념에 대한 혼란이 오늘의 한국교회 성장의 정체성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⁵⁵⁾

54) 정성구, 『21세기 개혁교회는 살아 남을것인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99), p.22-25.

55) 정일웅, “한국교회 성장 방안연구”, 『한국교회 성장 및 활성화 방안연

웨스터 호프(John Westerhoff III)는 신앙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의미와 목적을 지닌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적이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300명이 넘는 교회는 신앙의 유지, 전달, 전개를 하는데 본질적 상호연관 작용을 매우 쉽게 결손, 탈락 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⁵⁶⁾

한국교회의 목회의 패러다임은 성장 중심이었다.

교회성장은 개 교회의 숫 적인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교세 확장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처럼 수에 치우친 성장의 이해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목회 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목회와 교회 성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적인 성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관리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공동체의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총동원 전도 주일을 통해 교인수를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이러한 전도 운동에 대하여 문제성이 지적 되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신자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신자들을 뺏어오는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물질주의가 교회로 흘러들어 오면서 목회의 성공여부가 물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평신도 사이에서 큰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착각을 만들고 있으며 교인수와 연보 액수가 목회자가 성공한 것으로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의 추구는 극도의 개 교회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되었고 다른 교회끼리 경쟁상대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복음의 온상으로서 한국문화의 풍토 중 교회의 기복신앙의 병폐를 지적

구』, 제9회 한국교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총신대학부설 한국교회문제 연구소, 1994). p.4.

56)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p.221-223, 103.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가 성장에 따른 커다란 문제점 앞에서 진정한 자각이 없이 당장의 눈에 보이는 교세 확장만 조급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질적으로 내적으로 교회의 성장의 개념을 인식하고 교회성장의 성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서 올바른 목회 관으로 수정되어야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⁵⁷⁾

2. 개 교회주의의 요소

개교회주의란 “교회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전개하며 교회 내의 인적,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별교회의 내부의 문제 특히 개별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 우선권을 부여하는 태도 또는 방침”⁵⁸⁾을 말하며, “한 교회의 영향력이나 사역과 성장을 그리스도 교회 전체의 영향력이나 사역과 성장보다 더 중요시하고 같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섬기는 다른 교회와 경쟁적인 관계에 서는 경향”⁵⁹⁾을 뜻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교회주의가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현대사회연구소의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국 개신교는 교회 지상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을 지향하고 있고, 교회생활은 다시 초월지향성으로 수렴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교회주의적인 태도는 개회중심적인 태도를 지님으로써 기독교 또는 개신교 전체의 유기적인 통전성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⁶⁰⁾

57) 신현광, 『교육목회와 성장』, p.184-187.

58) 노치준,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 『한국교회와 사회』, 이원규편저, (서울: 나단출판사, 1989), p.40.

59) 손봉호, “한국교회와 개교회주의 그 문제와 대책”, 『목회와 신학』, (1995년3월호), p.87.

60) 김중기, 정진홍, 정학섭, 『한국교회성장과 신앙양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2), p.185.

물론 개 교회 사역과 영향력이 전체교회의 그것들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개 교회 주의는 한국 교회의 양적 팽창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교회가 탄생되었고 원리적으로 팽창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개 교회주의는 그 자체로 이미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 될 수 없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의 필요의 편의를 위한 교회로 변질될 위기에 있다. 그것은 개인주의 신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개인적 성공과 결부시켜 해석하며 인생을 즐기는 개인적 래저 생활 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⁶¹⁾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의 모든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며 헌신하도록 소명을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같은 목적을 위해 사역하는 다른 교회와 경쟁관계에 산다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망각하고 부차적인 것을 궁극적인 위치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한국민족의 최대약점인 비합리적인 과벌주의와 자본주의에 익숙한 개인주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인 사이의 공동체성 결여, 이 모든 핵심적인 이유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편견과 가르침이다.⁶²⁾ 그러므로 앞으로 미래 목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목회 그리고 그 구성원이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전환하는 교회 교육이 있어야 개인주의적 개 교회 주의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⁶³⁾

61) 금원수, “21세기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목회연구”,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26.

62) 손봉호, “한국교회와 개교회주의 그 문제와 대책“, 『두란노목회자료백과13』,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p.373-374.

63) 금원수, “21세기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미래목회연구“,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3. 도덕성 상실의 문제점

한국교회는 지금 도덕성에 있어서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다. 한국교회 성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모습과 도덕성에 직결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초창기 교회의 신앙적인 인물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애국적인 정신과 민족을 사랑하는 그들의 인격성과 신앙심은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존경받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적 평가다.⁶⁴⁾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의 교회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르다고 하겠다. 기독교인의 윤리문제에 있어서 ‘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를 살펴보면 70년대와 8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산업화 과정이 일어났다. 그런 과정에서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며 부도덕한 소비성 향락 문화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교회도 덩달아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 것도 사실이다. 교회는 물량주의에 편승해서 대교회 지향주의가 나타났고, 부도덕한 사회 현실과 정의의 문제를 외면하고 은사운동과 기복신앙에만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교회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교회는 그동안 회개와 십자가보다는 영광과 축복으로 일관된 공격적 사고로 현실 타협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고뇌하는 기독교보다 즐기고 누리는 기독교만이 찬양되어졌다.⁶⁵⁾

석사학위논문, (2000), p.25-26

64) 정일웅, “한국교회 성장방안 연구”, p.6.

기독교 윤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로 푸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다른 무엇이 있어야한다. 그것은 곧 가치관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의 사회는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 도상에서 나타난 문제들, 곧 질적인 성숙을 저해하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동안의 한국교회 성장은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적인 정신과 삶의 태도, 그리고 높은 도덕성에서 맺어진 유산의 열매임을 거울삼아,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후대에 그러한 유산을 남겨줄 정신적인 유산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러한 도덕성을 회복을 위해 참된 교육의 길이 모색되어 한국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⁶⁶⁾

B.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의 문제점

1. 교회교육 관점에서의 문제점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육현실을 살펴보면 ‘주일학교의 죽음’이라는 용어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전체교인들의 숫자도 마찬가지로지만 특히 아동과 젊은이들의 수적 격감이 심각한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교사 확보조차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반 교육에 비해 교회교육은 시설이나 방법에 있어서 점차 비전문적인 경향으로 흐르면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찬란한 교회교육의 역사와 전통이 점차 퇴색되어 가

65) 정성구, “변화하는 시대의 목회”, 『신학지남』, (1993년 여름), p.164.

66) 손봉호, “교회의 도덕성 결여가 교회성장을 가로막는다”, 『월간고신』, (1992년 8월호), p.29.

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교회교육을 이처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 외적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밖으로 다가오는 산업화와 그 여파에 의한 것이다. 산업화란 공장 문화를 의미하지만 이 공장 문화는 인구 이동이라는 사회변동을 가지고 왔으며 이로 인하여 젊은이들의 농촌 탈출은 가속화되고 농촌은 사람 없는 농촌교회! 교사 없는 주일학교! 이 현상은 대도시까지 파고들었다. 농촌과 대도시의 교회는 인구 상실의 휴우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 사회는 전자사회(Computer Society)로 변해가고 있다. 문자중심, 언어중심의 문화로부터 점차 T.V문화, 영상, 컴퓨터 문화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는 그 전달 매체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에 따른 인간성의 변화도 초래했다. 즉 단순히 구전적인 방법에 의존해 오던 의사소통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참여’하는 동시적 작동이 가능한 다원적인 멀티 미디어(Multi-Mediaman)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자와 언어를 주된 교육방법을 사용해온 기독교 교육은 새 시대의 도전 앞에 서 있으며 의사소통 구조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어린이는 4차원적 시청각 인간으로 변모하는데 반하여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직도 2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는 내적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으로 솟구치는 몇 가지 현상으로부터 온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교회의 재정적 지원의 빈약성, 교육정책의 부재, 교육자료의 낙후성, 교육시설과 장비의 부족,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의 모집, 훈련과정, 그리고 지도력, 전문 지도력의 결핍 등은 교회 교육을 점차 후퇴시키는 요인들로 해석되고 있다.⁶⁷⁾ 이러한 요인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목회의 분리현상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육을 목회와 분리함으로써 교회 교육은 교사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에게 위임하는 실정이다.

둘째, 학교식 위주의 교육으로서 주입식 교육내지는 권위주의적 교육으로 일관되어 교육이 성경암송 혹은 성경공부 정도의 지식교육으로 이해되어 왔다.

셋째, 교육구조의 불균형이다. 주일학교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기회만 주로 제공하고 성인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비전문적 지도자의 문제이다. 교사나 지도자나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만족된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⁶⁸⁾ 이러한 교육의 현실 속에서 교회 교육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하며 상실되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교회교육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바람직한 교회 교육의 방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교회학교의 교회교육의 문제점

주일학교의 조직이나 교육과정은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어 교육적 목적을 이루어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체계적 교

67) James A. Wharton, *Theology and Ministry in the Hebrew Scriptures*, ed. by E. Shelp, Ronald Sunderland, *A Biblical Basis for Ministry*(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p.28.

68) 정해원, 『21세기 목회 새바람 교육목회』, p.16-19.

육이 아쉬운 면이 대부분이다. 주일학교의 교육과정은 대개 각 교단의 교육국에서 제작한 공과와 학습 자료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교회학교의 주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목회자의 인식 결여, 재정부족, 전문교육자의 부족,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정과 방법론, 연약한 사명감, 세례자 교육의 부재, 주일학교의 운영의 비전문성, 교회내의 공동체의식 결여, 물량주의와 대형화에만 관심 등으로 진정한 예배와 신앙교육에는 소홀함이 사실인 것이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교육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은 교육의 본질과 기능, 교육의 구조와 과정, 교육의 명분과 교육의 능력이 서로 쌍방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 사이에 부조화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교육이란 단순한 현상이 아니어서 복합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의 교회학교 교육은 초기 외국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한 이래 1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성경적 지식을 일방적이며 권위적으로 학습자에게 집어넣는 이른바 ‘주입식교육(Cramming Education)’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이나 그것의 시행 없이 오직 교사가 공과를 암기하여 강의식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새로운 교육 방법의 적용 없이 강의전달식 교육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교육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한국 교회교육이 주입식 교회교육, 혹은 미국의 교육신학자 존 웨스터 호프 III세(John Westerhoff III)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한국 교회교육이 학교 수업형 모델교육(Schooling Instruction Paradigm)⁶⁹⁾을 따랐

기 때문에 파생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정적인 결과는 교육의 전인성과 교육의 통전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수업형 강의 전달식 주입교육 방법의 부정적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교육의 새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강의 전달식 주입 교육은 학습자들을 지겹고 지루하게 하여 학생과 교사, 성경과 학생이 서로 교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 간에 쌍방향적인 인격적 교동을 뜻한다. 그런데 강의 전달식 주입교육은 학습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학습자와 교사의 진실한 만남과 교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준비된 교사, 준비된 학습자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반시간이 교수-학습의 역동성이 없고 감동과 활력이 없는 것이다.

둘째로 지나치게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는 학습자의 참여가 적고, 수동적이며, 소극적으로 되는 점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반 강제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떨어지며 배움에 대한 자율적 욕구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며 학습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주로 인식적이고 지적인 영역(Cognitive Domain)의 내용 전달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 운동기능적(Psychomotor Domain) 영역이 무시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철학

69) 존 웨스터호프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 온 교회학교 교육을 학교-수업형 범례라는 용어로 규정짓고 비판한다. 그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교회교육이 지나치게 공적인 제도교육과 학교식 교육에 의존함으로써 교회교육의 본래의 참다운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다음의 책을 참조. J. H. Westerhoff,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Seabury press, 1979).

자 벤자민 블룸(B. S. Bloom)은 교육목표를 지적인 영역, 정의적 영역, 운동 기능적 영역으로 삼분하고 이 세 가지의 영역의 발달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한바 있다.⁷⁰⁾ 교육학의 선구자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가 지. 덕. 체라는 세 영역의 교육의 통합성과 전인성을 말했던 것을 벤자민 블룸이 이어받아 강조한 것이다. 강의 전달식 주입 교육이 주로 지적인 영역에서만 지적 습득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결과 교육의 전체성은 상실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형적 기독교 교육이 우려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잘 알고 있으나 그것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부조화와 괴리 불연속을 가져다주고 삶의 이중성과 분열 속에 사는 신자들이 되는 것이다.

넷째로 교회가 학교 교육의 스테레스의 연장선이 된다. 일반 학교 교육이 비인간화 경쟁교육이고 교육의 본질이 점점 왜곡되어 가는 현실이라고 교육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적 소외감과 고통을 담은 교육이 되어 가는 것인데 교회의 신앙 교육도 학교식 강의와 행정의 답습으로 학교처럼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교회 교육의 방법론의 부재성을 지적해 보았다. 미국의 교육 신학자 존 웨스터 호프는 “오늘날 기독교 교육은 그 서있는 기초가 뿌리로부터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확신한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추진해도 이제는 이미 손끝의 개선책으로는 아무 효과도 거둘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회는 지나친 학교 강의 전달형 규범

70) Benjamin Bloom은 일반 교육학에서는 주로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효과적으로 분류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위와 같은 세 영역의 교육 목표를 각 분야로 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의 책 참조. D. R. Krathwohl, B. S. Bloom, B. B. Masisa 공저,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교육목표 분류학』, I, II, 서울: 익문사, 1983.

을 편집증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이다”⁷¹⁾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국교회 교육의 현실을 가장 잘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⁷²⁾

3. 장의 변화에 대한 소홀한 교회교육

교육은 일정한 장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다루고 사회 보존과 발전을 꾀하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 함께 얽혀서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교육이 일어나는 장은 언제나 이미 쇠마임과 아레츠가 공존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다. 우리는 시대를 넘어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없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해 주는 이러한 다양한 장 안에서 학생들을 교육한다. 또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또한 교육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나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 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에서, 바다에서, 회당에서, 집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교육의 장을 엿보게 된다. 당시에 사람들은 도처에서 배웠다. 학생과 선생이 따로 없었다. 교육은 처음부터 일정한 내용과 형식으로 정형화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상황으로부터 콘텍스트로부터, 쇠마임과 아레츠의 구성으로부터 빚어져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요8:7)고 대응하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췌기처럼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아프게 물어뜯어서 일

71) J. H. Westerhoff,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Seabury press, 1976), p.7.

72) 김태원, “한국교회의 교육방법론 개혁에 관한 소고”, 『기독교 교육논총1권』,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서울: 한국장로회 출판사, 1996), p.58-63.

깨우는 힘을 발휘하였다. 상황은 교육이 일어나는 장일 뿐 아니라 교육의 방법이며 형식이며 교육의 내용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을 상황 안에서 상황을 통하여 교육하는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과 비유는 모두 이 상황과 비유의 내용들을 삶의 상황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체적으로 직접 체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통로였으며 인식의 형식인 것이다.

교육의 장들과 상황들에는 가정, 교회, 사회, 학교, 집단 등이 있다. 가정은 교육의 본질적 장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정 안으로 창조하셨으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면 교육이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만드셨다. 교회와 학교가 교육의 장들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교육의 효과는 이러한 상황의 인식과 재구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천은 다양한 새로운 교육의 장들을 요구하고 양산해 내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정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계속교육, 언론과 방송을 통한 대중매체의 교육의 장 등이 역사와 더불어 계속 변화되고 확장되는데 따른 교회 교육의 이해와 대처가 소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적 관심이 확대되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 장으로 거듭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⁷³⁾.

73) 오인탁,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 교육 논총2권』,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1997), p.18-24.

V.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교회교육의 발전 방향 제시

A. 칼빈의 교회교육에 의한 교육방향 예시

칼빈의 신학적 가치는 개혁주의 전체적 영향권에서는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에게서 남겨진 신학과 사상 교육적 소명 속에서 목회의 진지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J. Calvin)의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여러 면에서 루터의 것을 본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중심적인 내용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등이며,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응용한 것도 유사한 점이다. 그러나 칼빈은 단순한 모방에 머문 것이 아니라 모방을 통하여 이미 자신이 것으로 승화한 독창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이 이 책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동시에 인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며 생존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존재의 근거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섬기는 자로 세우려하는 것이다.

칼빈은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도록 하기위하여 372개의 질문과 대답을 계속하여 연결시키고 있다. 물론 가르침의 내용으로는 루터의 것처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먼저 사도신경을 다루고 그다음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교육과정의 독창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루터가 ‘질병’-‘약’-‘영적건강’의 패턴을 사용하여 창 의적은혜의 경험에 목표를 두었다면, 칼빈은 그 단계를 뛰어 넘어 ‘믿음’-‘삶’-‘영적건강’의 구도를 따라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⁷⁴⁾

학습방법에 있어서도 칼빈은 루터의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사용된 방식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지만, 칼빈이 사용한 방식은 루터에 비하여 분석적이며 반대질문(Oppositionsfrage)을 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여기에서 분석적이란 말은 중요한 질문이 제시되면 그 질문에 관련하여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여 상세한 대답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매우 분석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며, 심지어 학습자나 기독교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대적인 물음까지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질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총 37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순환되도록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배운 바를 확실히 하도록 하기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장로교회의 신앙 표준서인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앙교육서는 신앙고백과 대. 소요리 문답이 있다. 이들 문서들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바른 규범을 보여주고 있다.⁷⁵⁾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것이므로 그 성격에 있어서 칼빈주의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구원의 도리에 대한 것으로(4-38문)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성령 등을 다루며, 둘째는 신앙적 삶의 의무에 관한 것으로

74) 정일웅, “교리교육과 커리큘럼”, Op. Cit.,45

75)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란 1643-1647년까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모인 회의에서 제정된 장로교신앙에 관한 내용으로 신앙고백과 196문답의 대요리 문답, 107문의 소요리 문답을 말한다. 대요리 문답은 교역자를 위한 것이며,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를 위한 것이었다. James B. Green, Op, Cit, p.9.

(39-107문) 십계명, 믿음과 회개, 하나님의 말씀, 성례, 주기도문 등을 다루고 있다.

요리문답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종류 즉 긴 대요리 문답은 그것에 따라 기록한 교리의 몇 가지 점들이 매주 해설되는 성경의 어떤 구절들의 짝과 순서에 의해서 경건의 대요를 전달하기 참여하기 전에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의 시험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서⁷⁶⁾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그들이 반복하여 암기하고 그것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도록 하였다.

학습의 방법으로는 역시 전통적이며 연역적인 것으로 간략한 문답의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이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학습자의 이해를 분명히 해 주기 위하여 활용했던 분석적이거나 반대편 질문의 적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종교 개혁시대의 신앙교육서의 모델을 따르면서도 교육 심리학적인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훨씬 신학적인 교리의 완벽한 해답을 규범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⁷⁾

한국 장로교회도 웨스트민스터의 전통과 신앙고백의 노선을 따르고 있으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신앙고백서는 장로 교인들이 믿는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학습의 대상에 따라 구별이 된다. 학습의 대상에 따른 내용의 차이를 보면 성령론에 관한 부분에서 교회론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없다. 신앙의 초보자들 특별히 세례준비자와 입교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소요리 문답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신앙고백서의 9장의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은 대. 소요리 문답에 기록

76)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신학*, (서울: 도서출판하나, 1998), p.211.

77) 정일웅, “교리교육과 커리큘럼(II)”, *Op, Cit*, p.44.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요리문답에는 삭제되었을지라도 오히려 초신 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함에 있어⁷⁸⁾ 오늘날도 첨단 문화의 발전과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다시금 진정한 교회 교육이 회복되도록 가르치고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교회교육의 신앙교육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준이 없이 지나친 주관적 경험, 또는 신비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대적, 세대적 다양화와 급변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가치의 혼돈의 욕구가 분출되는 시대에 기독교의 신앙의 교회 교육의 분명하고 올바른 입장을 세워주지 못함으로 오늘날 교회교육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칼빈의 신학적, 목회적, 교육적 사상과 그의 교회교육의 활발한 활동에서 교회교육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중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하나님 중심 교육

칼빈 신학은 그 출발과 종결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초로 한다. 칼빈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혜는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진리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진리에 속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계획에 순응하는 사상이 무장됨이 없이는 인간된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바로 식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기 부여 받은 가장 큰 선물인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78) 임경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통한 개혁주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0). p.38-39.

온 것이다.”⁷⁹⁾

이것은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인간의 자아인식에 대한 사상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한, 자신의 분명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⁸⁰⁾

칼빈은 인간 실존이 하나님께 예속되었고 그의 사상이나 활동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인식론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보존하신다는 사상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중시성을 보여준다. 1542년에 출판된 제네바 교회 신앙문답서의 첫 문답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란 질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은 칼빈 사상의 출발점이 동시에 귀착점이다. 칼빈의 교육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있다.

2. 교리중심의 교육과 이원화 극복

Osmer는 “현재 교회교육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개신교의 실패로 지적하며 앞으로의 미래는 이러한 현실을 고치는 능력에 있으며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교리교육의 실천이 오늘날에 있어서 바른 성경적인 입장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⁸¹⁾

오늘날 교리교육이 교회 학교와 가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신학적이며 교육학적인 이유로 나누어서 진단

79)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ll, tr.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I, I, 1.

80) Ibid.

81) 박수은, “웨스트민스터 타테키즘의 현대교수학적 적용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원 석사논문, (1998), p.23.

할 수 있다. 첫째 신학적인 이유이다. 요리문답은 사변적이어서 신앙의 삶에 응답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의 세우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요리문답에 대한 오해이다. 신앙의 원리와 삶의 상황은 밀접한 관계성을 지닌다. 신앙에 대한 바른 원리와 이해 없이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실천적 삶의 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리교육에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바른 신앙의 원리 기초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신학적 필요와 관련하여 교리교육은 교육학적인 필요를 갖는다.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변화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신앙인을 가르치는 일은 교수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오늘날 다양한 교수 방법론이 대두됨에 따라서 교육방법론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발전되어 왔으나 그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기보다는 방법론이인 것이 가르칠 내용보다 앞서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대. 소요리 문답의 가르침에 있어서 바른 신학적인 적립을 통하여 그 내용적인 면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이 제기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장로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과학 문명의 발전과 다양한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오늘날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들 즉 유전자 복제양 도리의 연구와 같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위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다.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삶에 응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교리교육은 신앙의 원리와 확신을 가르치며 표준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도구로서 교회 학교에 반영하여야 한다.⁸²⁾

또한 한국교회가 교회론 적으로 볼 때 잘못 발전된 주일학교 교육을 받아들여 오늘날 심한 진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인목회와 주일학교(성장 세대)교육의 극심한 이원화 현상에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나친 학교식 형태의 교육을 지향함으로 교회 교육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극복하는 길은 바로 칼빈의 실천했던 교리 교육의 방법과 같이 요리문답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속에서 설교되어야 하고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교육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은 주일학교 교육과 성인교육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원화 된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요리문답을 통한 효과적인 교리교육의 이 방법은 주일학교 교육과 성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적 차원에서의 이원적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⁸³⁾ 될 것이다.

신앙 문답서를 통한 교리교육은 교회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입교 문답 자들과 성인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한다면 몇 가지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교리교육은 성경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지식의 전수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신자들의 신앙관의 확립, 곧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를 확립시켜 준다. 신앙관이란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 신님의 기본적인 체계를 뜻하며 나아가서는 신앙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교육은 바로 이러한 신자들의 바른 신앙관을 확립하는 기능을 부여해 준다.

그리고 성경해석의 기본 열쇠를 제공하여 준다. 교리교육은 궁극적으로

82) 염경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통한 개혁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0), p.12-13.

83) Ibid, p.17.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는 눈과 그 자질을 공급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로서 성경전체를 보는 눈과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의 능력을 길러주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바른 신앙적 삶의 지침을 제공해 준다.

개혁신학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인 신앙교육서, 즉 루터, 칼빈,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는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서로서 그 교육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리 문답교육은 교회 내의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교회생활의 통합적 기능을 갖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⁸⁴⁾

3. 교회 중심의 교육

칼빈 신학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교회 중심 신학이다.⁸⁵⁾

또한 칼빈은 “하나님은 다만 교회의 교육 아래서만 그의 백성들을 조금씩 조금씩 성인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고 말하고 있다.⁸⁶⁾ 왜 하나님은 교회의 교육을 이처럼 귀중히 여기시는가? 그 까닭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생겨진 기관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에게 응답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칼빈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가? 칼빈의 교회를 통한 교육은 성경중심의 교육으로 설교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 그리고 경건훈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다.⁸⁷⁾

84) 이은규, 『교육목회의 New 파트너』, (서울: 크리스천리더, 2002), p.40-42

85) G. Vos., The Teaching of Jesu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nd church,

정영숙 역, 하나님나라,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p.153.

86) J. Calvin, Inst, IV, iii, 1.

87) 정해원, 『21세기 목회의 새바람 교육목회』, (서울: 도서출판예루살렘,

칼빈은 성경 중심의 교육을 말하고 있다. 그의 신학과 사상을 성경의 토대 위에서 전개하여 나간다.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도 성경이라고 보았다. 성경에 대한 그의 생각은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강해하였고, 각종 주석들을 통하여 성경 해석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에 와서도 개혁 신앙의 바탕이 되며, 성경을 토대로 한 참 신앙을 추구하게 한다.⁸⁸⁾

왜 칼빈은 성경을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고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의 기록이고, 그래서 그 가르침은 참되고 또 그러한 확신들은 성령의 설득에 의해 느낌으로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는 것은 이론적 토의나 합리적 논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주장한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다. 성경은 마치 노인들이나 약시자들에게 있어서 안경과 같아서 그것 없이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명백하게 인식 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원천으로써 유일할 뿐 아니라 완벽한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우리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모두 들어 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 모든 지식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모든 교육 행위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천한 독특한 인물이 바로 칼빈이다.

또 칼빈은 설교 말씀을 통한 교육을 중시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2000), p.105-106.

88) 정정숙, 『개혁주의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p.180.

교사를 세우시고⁸⁹⁾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복음의 말씀이 비록 인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이며⁹⁰⁾, 최고의 법정에서 공포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늘에서 준비되고, 확증되고,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다. 칼빈은 에베소서 4 : 12을 인용하여 교회는 외적인 형식을 취하는 ‘설교’에 의하여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고, 또 성도들은 마음을 하나로 하여 배우고 또한 자라며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된 교회의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이외에 어떠한 명에에 의해서 도 서로 결합되는 일은 없다고 하고, 또한 옛날 율법시대의 성도들이 성소에서 집회를 가지도록 명령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본다. 출애굽기 20 : 24의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거처와 경건한 교리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사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빈을 “성경의 사람”, 혹은“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가 사명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시키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고,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⁹¹⁾ 그래서 칼빈은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을 바로 교육하였다. 그는 예배에서 설교의 위치를 높였으며,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버리고 대중화하였다.

89) 에베소서 4:11.

90) 데살로니가전서 2:13.

91) 신복윤, 『칼빈의 목회원리』, 신학정론5권, (서울: 도서출판목양, 1990), p.450.

칼빈은 성례전을 통한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실 때 직접 만나지 아니하시고, 전달이나 가시적 상징을 수단으로 하여 만나신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성례전적 교제로 보았다. 그는 질서가 잘 잡히고, 잘 다스려지고 있는 교회라면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식이 자주 거행되고 모든 신자들이 이 예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⁹²⁾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성례전에는 반드시 말씀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성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말씀 없이는 성례의 요소들은 단순한 물이요, 떡과 포도주에 지나지 않는다. 칼빈은 처음부터 말씀과 성례를 평행적으로 다루었다. 물론 이 둘을 동일한 평면에 둔 것은 아니었다. 성례는 말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완성적인 것이다.

성례전의 효과는 구속과 의와 성화와 영생이며 이로써 우리 영혼은 만족과 확신을 가지게 되며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함으로써 우리도 강하게 된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찬식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가능하면 매주 한 번씩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선포하고, 한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것과 같이 한 몸이 되어 사랑의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92) John. Calvin, Inst., IV, 17, p.43.

B. 바람직한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방법론 제시

한국 교육신학의 개척자인 은준관은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교육은 사실상 개선장군의 위풍이 사라져 간 노장처럼 아니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도 전에 안팎으로부터 얻은 상처로 인한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⁹³⁾ 그는 현재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의 위기를 야기하는 원인을 “새 술(복음)을 새 부대(인간의 삶의 요청)에 넣지 못하고, 낡은 술(교리와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을 낡은 부대(낡은 방법)에 넣는 데 있다고 말한다.⁹⁴⁾ 이와 같은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한국 교회교육의 모형이 현재의 삶의 경험과는 무관한 과거 지향적인 교육이며, 1970년대 이후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물질문명에 대한 지나친 과신, 각종 사회적인 타락현상 등의 새로운 상황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다운 인간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교육의 개선은 성장의 그늘에서 멀어져 갈 뿐 아니라 관심조차 갖지 못하는 아쉬움의 숨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러나 교회교육은 살아 있어야 하며 생동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몸소 행하시고 명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맥루한은 기독교교육 방법론에서 보면 교육방법과 전달 방법에 따라 메시지는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교육방법과 전달방법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육에서 교육내용만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방법이 변할 수 있고 그래서 교육방법이 교육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좋

93) 은준관,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 p.7.

94) 은준관, 『왜: 기독교교육 목적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0), p.12.

은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육방법도 중요한 것이다.

1. 한국교회의 교회교육 방법론의 다양화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은 단순한 학교 수업형 강의전달식 주입교육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교육의 전인성이 훼손되고 기독교인의 자기 정체성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즉 지적인 영역에 치우친 강의 전달식 주입교육은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삶과 행동, 이론과 실천의 부조화를 가져다주었고, 이러한 여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신자들은 아는 것은 많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삶의 이중성의 심각한 절음발이의 교육의 휴우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한 가지 교육방법론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는 이른바 교육방법의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상투적이고 경직화되는 교육방법론을 탈피해야 할 것이며, 그 방법론의 창조적인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교육신학자 케네트 강겔(Kenneth Gangel)은 “교육방법 중에 가장 나쁜 교육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늘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교육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95) 케네트 강겔의 주장대로 한 가지 교육방법만을 가지고 똑같은 학습자들에게 매번 적용한다면 교육효과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 수업형 강의전달식 주입교육이 여러 교수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 수업형 강의전달식 주입교육이 여러 교수방법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가

95) Kenneth O. Gangel, Understanding Teaching 김국환 역 「교회교육에 대한 이해」, 서울: 무림출판사, 1991), p.54-55, p.122. 이 책에서 케네트 강겔은 교육방법의 다양성과 창조성에 관하여 역설하고 있다.

르치는 교수-학습 방법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강의전달식 교육방법만이 계속 사용되어야 할 주된 교육방법이 아닌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강의 전달식 교육방법 이외에도 학생들의 참여와 행동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 현장에서 체험을 통한 현장학습(Field Work), 과업을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그 과업을 완수하게 하는 프로젝트 학습방법, 토의와 토론방법, 전자매체를 통한 교육방법, 인간관계적 게임을 통한 그룹 다이나믹스적인 방법 등, 수없이 많은 교육방법이 있다.

따라서 되도록 강의전달식 교육방법 이외의 창조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 교회교육도 이제는 케네트 강겔의 지적대로 학교 수업형 강의 전달식 주입교육만을 고집하지 말고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 교육 연구팀들은 교회 실정에 맞는 교육방법론을 개발해야 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교사 훈련이 시급하다.⁹⁶⁾

2. 공동체 중심의 교회 교육방법 제시

현장에서의 교육방법 개혁을 위한 시급한 대안 중의 하나는 공동체 중심의 교육방법론을 회복하는 일이다. 급격한 사회 변천으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는 현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인 공동체가 파괴되고 인간이 소외되고 비인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자들을 오히려 개인주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형 강의전달식 교육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교회교육 현장에서 공동체 중심의 교육방법론을 실시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살아 있는 신앙이 활동하는 자리에는 그 신앙의 내용을 알고 이

96) 김태원, “한국교회의 교육방법론 개혁에 관한 소고”, 『기독교교육논총1권』,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1996), p.64-66.

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하고 증거 하려고 노력하는 신앙공동체가 존재한다. 아울러 신앙공동체의 본질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앙공동체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교육공동체(Education Community)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의 신앙학습자의 배움은 신앙공동체 속에서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한 참여를 통하여 일어나며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공동체의 자기이해와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세계와 타자 그리고 궁극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잠재되었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교육현장에서 주로 행해지는 학교 수업형 강의식 주입교육은 공동체 중심 교육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⁹⁷⁾

그러므로 공동체 교육론은 지적인 영역에 치우친 단순한 성경적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 중심 교육은 지적인 교육보다 지, 정, 의라는 총체적인 교육 형태를 띠기 때문에 지식중심의 지적인 교육의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진정한 만남이 있고 신앙 공동체의 역사적인 이야기와 비전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기 위한 살아있는 증언과 삶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공동체의 전통이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 되어질 수 있다.

해석학적 교육 신학자인 무어(Mary E. Moore)는 신앙공동체의 역사적 전통을 회상하고 그 전통과 현대적 경험의 연속성을 추구한다. 신앙공동체는 신앙과 교리와 함께 새로운 지식과 비판의 조명 속에서 옛것들이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함축적인 의미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의 빛 아래서 그들의 신앙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변형하고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⁹⁸⁾

97) Ibid, p.71-72.

98) Mary E. Moore, *Education for continuity and change*, (Abingdon Press,

주장하고 있다.

신앙공동체에서의 만남이나 사회화, 혹은 선교역군으로서의 훈련, 전통의 수납과 비판적 성찰은 참다운 신앙인의 삶에 참여하게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나친 개인주의화에 몰입되어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너와 나의 만남이 그곳에서는 희박하다. 신앙의 지나친 내면화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참여자들의 기독교적 사명을 함께 실천해 가는 과정이 미흡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경험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비록 현재 뿐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과거 전통과 미래의 꿈에도 적용된다⁹⁹⁾. 이와 같은 신앙공동체 교육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시도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동체 교육에 접합한 교사의 양성과 적용을 하여 실천적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교회적 상황에 맞추어 필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교회학교의 성장을 위한 교사상의 제시

교육의 효과는 네 가지 요소들 즉 교사, 학생, 내용,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교육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자질 향상은 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학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교회학교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 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학교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확보이다. 그러므로 교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

1983), p.61.

99) 김태원, “공동체를 통한 기독교교육”,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전망』,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1997), p.128-132.

해서는 한국교회는 교사상과 교사교육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사인 것이다. 교사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상을 먼저 살펴야하며, 성경적인 교사상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성경적인 교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서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막 1:14-15). 복음전파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교육의 가능성을 심어주는 사역인 것이다. 둘째는 제자를 교육하는 것, 즉 가르치시는 것이었다(막 1:21-22). 복음전파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새 신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음을 보여준다. 셋째는 병자를 고치신 것이다(막 1:25-27).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적이고 현실적인 필요까지 충족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회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향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만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교회교육은 지식의 전수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됨을 보여 준다. 넷째는 기도하시는 것이다(막 1:35).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셨다. 곧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얻었을 뿐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자신의 사역의 한 부분이었음을 보여 주신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를 교육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어느 곳이나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치셨다. 그 장소가 회당이든지 성전이든지 또는 길거리든지 기회를 얻는 대로 가르치셨다.

그리고 ‘선생’이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42회가 사용 되었으며, ‘가르친다’는 말은 47회나 된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조차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교사 주의 교사이요 최고의 교사였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교사의 증인이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경적인 교사라 할 때 그 모습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교사의 모습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나 있다(딤후2:15). 바울은 교사에 있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성경적 교사상은 현대교회의 바람직한 교사가 가져야할 교사의 원형이다.¹⁰⁰⁾

그러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무엇인가? 이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 되는 요소는 자신이 맡은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헌신적인 교사가 바로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사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헌신적인 교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 교회학교가 최근들어 성장기에서 침체기를 맞고 있다. 그 이유로는 주일학교 연령층의 감소, 교육내용과 방법의 진부함, 시설의 빈약함 등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사가 헌신적인 최선을 다하는 교사의 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분명 세속적인 교육수준이 교회교사의 질과는 정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다.

잘 가르칠 가능성을 가진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100) 한춘기, “교회학교 교사교육론”,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전망』,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1997), p.133-138.

는 헌신적인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다. 헌신은 교회사역 모두가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 좋은 교사로서의 조건은 성경지식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분이 되는 교사로서 배운 데로 실천하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사가 좋은 교사이다. 감화력과 리더십이 있는 교사, 실천을 통하여 학습자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참된 교사는 성경적이며, 교사가 교육을 헌신적으로 다할 때 교회학교는 변화될 수 있으며 교회는 많은 지식과 깊은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교사를 이 시대가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인 것이다.

VI. 결 론

주님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교회의 사명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님께서 온 세계와 교회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최근에 놀라울만한 성장의 축복 속에서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짐은 기쁨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소식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혼돈과 함께 세속화, 무관심, 무교육적, 무 방향성, 기독교 정체성의 상실의 문제에서 오늘의 교회교육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혁의 선봉자인 칼빈의 신학적 교육사상과 그의 교육론의 입장에서 성경적인 표준을 삼아 하나님의 중심적인 교육의 틀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표준을 제시하고 개발하여 평생토록 적용하여 온 그의 뜨거운 흔적을 통해 오늘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의 혼미를 치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대의 인류는 종교, 학문, 문화, 사상 등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초를 요구받고 있다. 객관성의 결여, 개인주의 극대화, 남성 중심의 현대 사회는 자연 파괴로 대표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으로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계몽주의사상에 의거한 ‘이성’을 중심으로 문화를 발달시켜왔다. 데카르트에 의한 이성주의는 오늘날 모든 문화의 대표처럼 되어있다. 이것은 교회 교육에도 스며들었다. 특히 신앙의 공동체성과 사회성, 그리고 초월성은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 이성중심의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교육의 터전이 되는 인식론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이성주의에 의해서 인식론은 논리성, 객관성을 주장함으로써 인해서 주객의 분리, 감정의 제거, 개인주의 등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의 사조들에 저항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서 교회 안에서 바빙크가 “기독교 학문은 모든 사물을 성경적 계시의 빛 안에서 탐구하며 이러한 사물들을 참된 관점, 참된 본질에서 볼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주장하였듯이,¹⁰¹⁾ 개혁주의의 진통을 통해 심혈을 다해 정리된 장로회의 근간이고 교리이며 개혁주의의 뼈대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통한 교리교육은 잃어버린 현대의 교회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안의 노력과 교육이 시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성경관을 확립하여, 다양한 세대의 노년에서 청소년, 유아에 이르기까지 교회교육은 멈출 수 없으며, 오늘날 변화와 개혁의 몸부림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교육을

101)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신학, (서울: 도서출판하나, 1998), p.151-152.

볼 때 신학적 재인식의 토대 위에 한국교회가 칼빈의 교회 교육론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미래적 안목에서 볼 때 교회교육의 목적과 자세, 교육방법론의 개혁 그리고 이 시대의 바람직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사상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니와 루이스는 교회의 성장을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원리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성장을 위한 독특하고 확실한 원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 원리를 교회에서 적용하게 되면 성장하리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성장의 중요한 원리로 첫째는 성경교육을 제시한다. 성경교육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이는 마치 육체가 먹는 것에 따라 성장하듯 영적으로도 먹는 것에 따라 성장하는 생리적인 원리요 영적인 원리인 것이다. 둘째는 교회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교육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면 그 결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조화는 교회의 온전한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¹⁰²⁾

따라서 신앙과 신학이 이어지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분이 그를 위해서 일할 때 비로소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교육도 믿음과 사랑 희생과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교회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102) 한춘기, 『교회교육 그 이론과 실제』,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p.241-245.

참고 문헌

국내 자료

- 김길성. 조직신학 교회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6.
- _____. 개혁신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6.
- 김득용. 기독교 교육원론.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0.
- 김진환. 한국기독교 부흥 운동사. 서울: 크리스찬 비전사, 1976.
-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2권.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 김중기. 정진홍. 정학섭. 한국교회 성장과 신앙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2.
- 김태원. “한국교회의 교육방법론 개혁에 관한 소고”. 기독교교육논총1권.
_____.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1996.
- _____. “공동체를 통한 기독교교육”.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1997.
-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 노치준.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 한국교회와 사회. 이원규편저, 서울: 나단출판사, 1989.
- 박형룡. 교의신학 교의론. 박형룡박사 저작전집VI. 서울: 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 신형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민영사, 1997.
- 손봉호. “한국교회와 개교회주의 그 문제와 대책”. 목회와 신학. 1995년3월호.
_____. “한국교회와 개교회주의 그 문제와 대책”. 두란노 목회자료백과 13.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 _____. “교회의 도덕성 결여가 교회 성장을 막는다”. 월간고신. 1992년

8월호.

- 신복윤. “칼빈의 목회원리”. 신학정론5권. 서울: 도서출판 목양, 1990.
- 오인탁. “21세기 기독교 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 교육논총2권. 서울: 한국기독교 학회, 1997.
- 이병철편저. 성서원어대전: 신학사전1. 서울: 브니엘출판사, 1985.
- 이은규. 교육목회의 New 파트너. 서울: 크리스천리더, 2002.
-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장로교회신학대학출판사, 1999.
-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3.
- 이영현. 교회의 발자취. 서울: 총회교육부, 1969.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교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 정성구. 21세기 개혁교회는 살아남을 것인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99.
- _____. “변화하는 시대의 목회”. 신학지남. 1993년 여름.
- 정정숙. 개혁주의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 정해원. 21세기 목회의 사바람 교육목회. 서울: 예루살렘, 2000.
- 정일웅. 한구교회의 새로운 목회관. 총신대학 목사계속교육 강의집 제1권 목사와 교육 II.
- 정일웅. “교육목회의 신학적 근거”. 기독교 교육연구 주제: 교육목회. 서울; 총신대학부설 기독교 교육연구소, 1990.
- _____. “교리교육과 커리큘럼(II)”. 교사의 벗 통원297호. 1992
- _____.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서울: 풍만, 1987.
- 한춘기. “교회학교 교사교육론”, 21세기 기독교 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한국기독교 교육학회. 1997.
-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학술 논문

- 금원수. “21세기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목회연구”.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 박수은. “웨스트민스터 타케키즘의 현대교수학적 적용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8)
- 임경임. “웨스터민터 신조를 통한 개혁주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 정일용. “한국교회 성장 방안연구”. 한국교회 성장 및 활성화 방안연구. 제9회 한국교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총신대학부설 한국교회문제연구소(1994).
- 홍창근. “교회의 신앙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초신자를 중심으로)”, 총신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3).

번역서

- Berkhof. L. 신복윤역. 교회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_____. 고영민역. 조직신학.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9.
- Calvin. J. 김종협, 신복윤, 이종섭, 한철하. 기독교 강요 상중하.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8.
- Jey. E. G. 주재용역. 교회론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8.
- Gangel. Kenneth O. 황성철역. 성공적인 경영자로서의 목회자. 서울: 한국로고스 연구원, 1996.

- _____. 김국환역. 교회교육에 대한 이해. 서울: 무림출판사, 1991.
- Edward Hakes. 정경숙역.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Vos. G. 정영숙역. 하나님 나라.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 Eavey. C. B. 김근수. 신청기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80.
- Williston Walker. 유형기역. 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 문화원, 1986.

외국 문서

- Bavinck, J. H. *the Church Between Temple and Mosque*,
Grand Rapids : Eerdmans, 1981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ll, t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 Dewey, John.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ur: Macmillan
Publishing, 1398
- Eenigenburg, Elton M. *The Place of the Covenant in Calvin's
Thought*. The Reformed Review10, 1957.
- Foster, Herbert D. "*Geneva before Calvin(1536-1537)*".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8, 1903.
-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 Herder and

- Herder, 1973
- Harrison Everett F. *Barker 's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rker Book House, 1982.
- Holl, Karl.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III. Der
Westen, Johannes Calvin*, Tübingen, 1928.
- Kraus, H. J. "Peadagogia Dei als theologischer Ceschtsbegriff."
Evangelische Theologie 11, 1949.
-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ap. X.
- Hesterhoff, J.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Seabury
press, 1976
- Wharton, James A. *Theology and Ministry in the Hebrew Scriptures*,
ed. by E. Shelp, Ronald Sunderland, *A Biblical Basis for
Minist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 White, Robert. "*The School in Calvin's Thought and Practi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12, 1969.